

## 오륙도 칼럼



김광수

재미있다. 문인들, 특히 소설가에게 달콤한 말하면서도 독목물이다. 언제 수준이 낮다는 말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다. 내심으로는 이미 수준이하라는 결론을 내려놓고도 말은 그렇게 하는 무서운 분

들도 있다.

잘한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 중 지극히 일부인 문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인생세간 어디에든 통하는 것이라서 더욱 무섭다.

진실이 없는 잘한다. 잘해봤자 사기다. 도덕성이 없는 잘한다. 범죄다. 도적으로 강도도 살인자도 훔치기와 뺑기와 죽이기는 잘만 한다. 감동이 없는 잘한다. 사적인 욕망이고 욕심이다. 타인을 한없이 괴롭히게 만든다. 진실과 도덕성과 감동이 바탕이 된 잘하기. 이것만이 지화자, 박수 받을만한 잘하기

다. 부산시 남구가 그렇다.

2011년 유월 18일 부산문인협회 소설분과, 부산소설인협회 정기모임은 부산남구청에서 출발하여, 남구의 자랑인 이기대 일원과 오륙도로 이어지고, 회를 곁들이 점심식사로 끝났다. 본회회원으로 창작소설집 『장산별곡』의 저자이기도 한 이규호 부구청장님의 사려 깊은 배려와 남구 알리기 행사의 일환이었다.

토요일 오전10시,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 등에 소속된 본 전원이 남구청사로 출근했다. 부산8경중에서도 백미인 이기대의 풍광과 오륙도의 신비함이라 중인

부인이 필요 없는 것, 구민과 시민과 외지인을 위한 친서민적 남구 가꾸기가 시종 일관으로 다가왔다.

남구청 방문과 이기대 걷기와 오륙도 구경과 점심식사까지, 고집세고 제멋대로인데다가 15명이라는 만만치 않은 수의 부산소설인들을 시종 환한 웃음으로 안내하는 분들, 표내지 않으면서 병풍역할을 하시는 부구청장님, 결론이다. 남구의 현재와 미래는 무한정 밝다.

남구청에서 커피 한 잔씩 마시고, 승람차로 남구의 명소를 주마간산 격으로 훑는다. 걷기를 죽기보다 싫어한다는 회원님들이 있어

서다. 암,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어지지. 이기대 입구에서부터 본격적 걷기, 언덕과 산과 해안과 바다를 아우르는 둘레길을 만끽한다.

감탄에 또 감탄, 천생 문인들이다. 시비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 어김없는 작품성 문제, 걱정도 팔자다. 좋은 작품은 구들물에 새겨도 자자손손 잊혀지고 그렇지 못하면 그냥 돌로 남을 것이거늘.

문득 1970년대 관광입국을 위한 경주개발프로젝트가 떠오른다. 구경하고 지나치는 관광이 경제성 전무함을 간파한 당시대통령이 경주와 근교를 휴식, 위락, 역사, 문화

의 복합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구상을 했다. 보문단지, 도투락월드, 도자기단지과 축소판석굴암 등이 구체적 예다. 불의의 사태로 그가 서거하자 사업은 답보상태, 마침내 아파트단지를 만들어 분양하는 것으로 상황 끝, 전형적인 난개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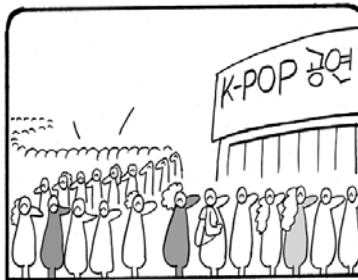
이기대, 오륙도, 시드니를 연상하게 하는 시가지와 주택가, 계획된 도시가 광역시 부산의 남구다. 오래오래 지켜야할 대한나라의 자산이다.

사회집단의 지도자로서 지역사회와 그 구성원을 위해 묵묵히 자신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공복들, 남구직원들이다. 그것이 거창한 구호 없이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애국애족 아니겠는가. 이쯤에서 로버트 케네디의 말이다. 비전 없는 국가가는 망한다. 소설인협회 회장

## 신선대

&lt;186&gt;

채 규중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많은 노인들은 지금도 나이 많고 힘없다는 이유로 상시 임금을 착취당하고 이유 없이 쫓겨나고 있다. 노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기업체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최복열 (문현4동)

## 선용의 1000자 지혜

### 천리마와 절름발이 거북

보통 말 같으면 열을 걸려도 못갈 길을 천리마는 하루에 그 먼 천 리 길을 단숨에 달린다고 한다. 물론 목적지도 끝도 없이 달린다면 보통 말은 죽는 날까지 죽자 살자 달린다 하더라도 영원히 천리마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면 천 리 길이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늦고 빠른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말도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마련이다.

길을 걷는 사람 역시 앞만 보고 걷는 것은 아니다. 분명 목적이 있다. 그 목적지를 향해 걷는 것이다. 우리가 배우는 학문의 길도 그러하다. 그런데 학문의 세계에서는 '기다린다'는 말을 한다. 앞선 사람이 멈추어 서서 뒤에 오는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빠르고 늦은 차이는 있지만 같은 목표에 도착한다.

낮잠을 자느라 느리보 거북이에게 진 토끼 이야기가 있지만, 발 하나가 없는 절름발이 거북이 일지라도 한발 한발 쉬지 않고 꾸준히 가ieran다면 언제인가는 천리 길도 갈 수 있을 것이며, 조금씩이라도 계속 흙을 쌓아올리다 보면 마침내는 높은 언덕이나 산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큰 강이나 높은 산도 끊임없이 메우고 깎는다면 평지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 아무리 훌륭한 천리마라 할지라도 가다가 물러서거나, 다른 길로 가거나, 이리저리 헤매고 게으름을 피운다면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천리마가 도착하지 못했다는 한 작은 꾸준한 노력을 한 것이고 다른 한 작은 노력하지 않은 것이다.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가지 않고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발휘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남에게 뒤지기가 마련이다. 자기가 게으름피운다고 남도 같이 게으름피우는 것은 아니다. 부두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하고, 감나무 밑에 입만 벌리고 누워있을 것이 아니라 나무에 올라가 가장 잘 익은 감을 따야 하는 것이다. 그것도 재빨리 입에 넣어가지고 그리지 않고는 자기 것이 안 될지도 모른다. 세상은 결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함께 어울려 살면서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변억문학가

##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는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항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bns4075@korea.kr

### 도로명 유래 알려주길

필자는 부산 토박이가 아니라 부산 지방에는 많이 어둡다. 지명에 많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지 지명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특히 우리 동네에 있는 큰 도로 이름들은 어떻게 유래했는지 무척 궁금하다. 이번 새로운 도로명 주소 도입으로 우리 남구에도 수십개의 큰 도로명을 띤 주소들이 생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남구청에서 남구에 있는 도로명 주소를 일괄 소개해 주는 코너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 자기가 사는 동네는 개별 통지를 받아서 알고 있지만 같은 남구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살지 않는 등

네의 새 도로명 주소는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새 주소에 사용되는 도로명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유래는 어떠한지 알려주면 남구에 대한 지식도 늘고 내가 사는 남구에 대한 지적인 만족도도 높아져서 남구민으로서 한층 더 높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박대근 (대연3동)

### 과일쓰레기 발생 줄이자

요즘 젊은 주부들이 수박이나 참외, 복숭아, 토마토 등 껍질을 벗기는 과일을 먹는 모습들을 보면 버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 아깝다는 생각

###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 대대적인 주차단속 실시

남구청 부근 불법주차 된 차량에 대해 강력한 주차단속을 건의하신 대연5동 윤정진 씨의 의견에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동성하이타운에서 남구청 방향과, 남구청에서 대연5동 방향으로 진입하는 이면도로 구간은 평소 교통량이 많은 구간으로 우리구에서는 불법주차 단속반을 주-야간 운용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법주차를 근절시키기에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지속적인 순찰 및 주차단속을 강화하여 차량 통행에 불편함

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lt;교통행정과·정찬운&gt;

#### 빠른 시일 내 반사청 결치

감만2동 동사무소 맞은편 가로등에 반사경을 설치해 달라는 우암1동 정종희 씨 건의에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감만2동주민센터 앞 골목길에서 내려오는 차와 석포로 통행차량과의 시야 미확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 반사경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남구청 교통행정과(☎607-456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박경도>

### 건설공사 불법·부실시공 추방합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각종 건설공사 발주시에 건설공사에 대한 위문 사항이나 불법 및 건설업 무등록자의 건설공사 시공은 건설부조리 신고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부조리 신고센터>  
•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T. 633-0260 F. 633-0261) (614-7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53-40 전문건설회관 4층)  
• 부산광역시청(건설정책과) 부실공사 신고센터(T. 888-3827) 부산광역시청(감사관실) 불법하도급 신고센터(T. 888-2541~4)

### ■ 살며 생각하며

### 독서의 바다에 풍덩



이두래

며칠 전 맹학교 3학년이 다니는 학생의 글을 읽을 기회가 있었다. '북소리버스'에서 빌려 읽은 '꼬마 구름 파랑이'라는 책을 읽고 쓴 독후감이었다. 북소리버스는 점자도 서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도서관이다. 어느 초등학교의 독후감처럼 순수하고 천진난만함이 듬뿍 묻어나는 글이다 내용도 탄탄했다. 대견한 맘으로 읽어 내려가던 중 "파란색이 어떤 색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아름답고 깨끗한 색 일거라 생각한다"는 문장 앞에서 비로소 글쓰기가 시작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슴이 저릿해옴과 동시에 부끄러웠다.

손으로 점자책을 읽고 점자로 독후감을 쓰고... 일반인보다 훨씬 힘든 독서를 그 아이는 했을 것이다. 일상이 바쁘다는 핑계, 책을 보면 눈이 아프다는 핑계로 TV앞에 앉아 오락프로나 보며 시시덕거리는 시간이 더 많은 나

는 얼굴도 모르는 그 아이에게 무척 부끄러웠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으면 요즘 어떤 영화가 재밌다 느니, 볼 만 하더라느니 하는 말들은 꽤 들었으나 책을 추천하는 일은 도무지 들어본 일이 없다. 취향의 차이겠지만 책을 읽는 시간과 영화를 보는 시간의 개념이 나에겐 다르다. 책을 읽는 동안은 '시간을 채웠다'는 느낌이지만 영화를 보는 동안은 '시간을 소비했다'는 생각이 든다. 책을 읽고 난 다음의 충만함에 비해 영화를 보고 나면 뭔가 허전함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책을 택했다.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 멀리 밀쳐두었던 책을 가까이 하자. 책과의 거리 좁히기가 우선이다. 서점에 가서 책을 사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책, 예전에 읽었던 책이라도 팔만 뻗으면 잡힐 수 있는 반경 내에 두고 쬔이 날 때마다 한 쪽씩이라도 읽도록 하자. 재미있는 책은 이삼일에 독파하는 능력이 생길 즈음 독서는 습관이 된다. 독자가 습관이 되면 발걸음은 당연히 서점을 그냥 지나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책 읽는 부모로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여름방학이자 휴가철이다. 불별 더위는 시작되고 산과 바다가 우리를 유혹한다. 이 한터위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 누구인가. 산과 바다로 떠날 때는 책도 슬며시 옆구리에 끼고 가져. 모든 것 다 잊고 독서삼매경에 빠지자는 것도 아니다. 신나게 놀다 지치면 산그늘, 나무그늘 혹은 비치 파라솔 아래 누워 책을 읽자. 워다가 잠이 오면 책으로 얼굴을 덮고 달콤한 우수에 빠져드는 것도 피서지에서의 낭만이 아닐까.

기사·수필가

### ■ 독자의詩

### 산

산이 푸르면  
아름답고  
산에 물이 흐르면  
산이 더 푸르르고  
마음의 땀을 씻어주네  
산이 신선함을 품어내면  
인생의 피로함을 풀어주네  
산이 꽃으로 물들이면  
향기를 품어내고  
나비와 벌과 새들이  
춤추는 무도장이 되네  
산에 눈썰매가 뿌리면  
온 산이 백발이 되네  
아- 산이여  
참되고 착하고 아름답다.



조규진

대연초교 7회 동창회장



### ■ 나의 생각

### 연금복권 520 對 국민연금



이래광

연금복권 520. 1등에 당첨되면 500만원을 20년간 매월 지급받는다. 베이비 붐 은퇴 및 노후준비 바람에 편승해 7월 1일 발행이후 2회차 까지 연속 매진 기록을 달성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내 자신의 노후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준비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있지만 노후 빈곤의 궁극적 책임 소재는 정부에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금을 운영하고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더 여유가 있다면 개인연금을 가입하라고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때문일까? 지난 몇 년간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주부들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발적으로 가입하려는 신드롬이 일고 있다. 1988년 제도 시행이후 근 20년 가까이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불만의 대상이었으나, 최근 들어 10% 이상의 수익률을 2년 연속으로 기록하더니 가입자도 늘어

2천만 명에 육박하고 수급자도 300만 명을 훌쩍 넘어 미운오리 새끼가 백조가 된 꼴이다. 소위 돈 흐름을 안다는 강남이즘마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국민연금만한 상품이 시중엔 없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안정적인 국민연금의 인기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남구에도 6월 말 기준으로 2만 1천여 명이 연금을 받고 있고, 평균 연금액 수령액은 월 30만원에 달하며 100만원을 넘게 받는 이른바 고액연금 수령자도 64명에 이른다. 최소한 10년 이상 꾸준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지금의 알토란들을 준비한 것이다. 이처럼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시간과 정성을 필요로 한다.

'매월 500만원씩 20년간, 국민연금보다 낫다.' 연금복권 520의 광고 문구다. 연금복권 520은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위한 노력의 과유불급의 단적인 사례로 판단된다. 1등 당첨확률이 무려 315만분의 1이다. 물론 로또보다 확률이 높고 연금처럼 매월 지급하기에 사회적 문제도 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연금복권 520을 사면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국민연금보다 나은 것일까?

감나무 밑에 누워서 훑시라 떨어지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생각으로 지금당장 나의 노후설계를 국민 연금을 통해서 시작해 보자.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장

###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인 李 福 熙 / 편집주간 河 仁 相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37-7373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ngj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원안 <비밀매출>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